



## 열나고, 기침나도 독감 아닐 수 있다, 가와사키병!

### 증상이 독감과 비슷해 초기 진단 및 치료 어려워 5세 이하 어린이, 환태평양지대에 주로 나타나



강남구에 사는 김지연(35) 씨는 최근 고열로 독감인 줄만 알았던 10개월 아이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가와사키병이었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처음에는 아이가 열이 나고 다리와 입 주변에 울긋불긋하게 발진이 올라 독감으로 열꽃이 핀 줄만 알았다. 가끔 기침까지 했고, 응급실에서도 독감이라며 해열제를 처방해줬다.

그런데 고열이 5일간 계속되고, 발진이 온몸을 덮으면서 눈이 빨개지고, 혀까지 울

긋불긋 해지기까지 했다. 다시 찾은 소아과에서는 가와사키병으로 추정된다며 큰 병원에 가기를 권했고, 결국 면역억제제(면역글로블린) 투여를 비롯해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심한 경우 심장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김 씨 가슴은 철렁했고, 처음 갔던 응급실에서 독감이라며 해열제를 처방해준 일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 ◆ 독감과 비슷해 초기 진단 및 치료 어려워

고열, 기침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독감 혹은 감기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가와사키병은 고열을 동반한 혈관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 심장의 관상동맥에 동맥류를 일으키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위험한 질환이다. 주로 한국, 일본, 미국 등 환태평양지대 국가의 5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발병율이 높으며, 가와사키병 연구회에 따르면 국내 발병율이 2006년 10만명당 108.7명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 112.5~118.3명까지 증가했다.

가와사키병은 독감과 매우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다. 가와사키병은 초기에 고열을 비롯해 경우에 따라 기침, 설사, 복통, 두통, 소화장애가 나타나는 등 독감과 매우 증상이 비슷하다. 때문에 이 질환을 진단받는 아이들은 대부분 처음에 독감으로 생각하여 해열제를 먹다가 다른 증상이 동반된 이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 ◆ 고열, 발진, 눈충혈, 딸기혀 나타나면 가와사키병!

가와사키병의 주요 증상은 고열과 발진이다. 5일 이상 39° C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서 1)손·발의 발진과 부종 2)양쪽 눈(안구)의 충혈 3)빨간 입술과 딸기 모양의 혀 4)온몸에 생기는 피부 발진 5)경부 임프절 비대 등 5가지 증상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와사키병을 의심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손창성 교수는 “가와사키병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지만, 심장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통해 증상이 의심이 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 ◆ 진단되면 장기간 아스피린 복용해야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되면 발병 후 10일 이내에 면역글로블린 다량 요법과 고용량의 아스피린 치료를 받게 된다. 이 방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면역글로블린 요법이 요구되며, 심장을 비롯한 다른 합병증의 가능성을 두고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잘 되어 증상이 호전된 경우라도 가와사키병의 심장 합병증 가능성으로, 장기간의 아스피린의 복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도 5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고열이 나타난다면 무조건 독감으로 생각하기보다, 유심히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도움말 | 소아청소년과 손창성 교수

### 다문화이벤트 의학발전기금기부

12.06.25	임병건	₩ 1,000,000
12.09.05	이규호	₩ 11,237,000
12.10.05	박순하	₩ 5,000,000
12.10.15	박흥찬,김나미	₩ 100,000,000
12.10.29	의과대학 30회 동기회	₩ 20,000,000
12.10.31	박경아	₩ 10,000,000
12.11.01	김정숙	₩ 100,000,000
12.11.07	의전원 10학번 학부모회	₩ 10,000,000
12.11.07	의전원 11학번 학부모회	₩ 10,000,000

12.12.04	의과대학 38회 동기회	₩ 18,000,000
12.12.06	박동규	₩ 5,000,000
12.09.11	격암문화재단	₩ 1,500,000
12.11.09	의과대학 교우회	₩ 31,687,500
12.11.27	김영배	₩ 5,000,000
12.12.14	민경록	₩ 10,000,000
12.12.18	윤을식	₩ 5,000,000
13.01.01	의과대학 77학번 동기회	₩ 40,980,000
12.12.31	서희건설	₩ 1,000,000,000

\* 기간 : 2012년 06월 25일~2012년 12월 31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 박승하 병원장 2013년 계사년(癸巳年) 신년사

[ 신년사 ]



존경하는 고려대학교병원 교직원 여러분!  
2013년 힘찬 새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묵은 갈등과 장애 요인은 모두 털어버리고 화합과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우리 고려대학교병원은 JCI 재인증을 획득하며, 국제수준의 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환자 확인과 손 씻기 같은 작은 실천에서부터 의료 프로세스와 설비 개선 등 병원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변화까지, 온 교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우리는 JCI 재인증 획득을 통해서 고대병원이 국제 수준의 환자 안전관리와 최상의 진료가 실현되는 곳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VIP병동 오픈, 암센터 확장 등 진료와 환자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였고 병원 운영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이제 2013년에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고대병원은 외형상의 성장뿐만 아니라 의료의 본질인 질적 향상을 통한 최고의 병원, 진료 분야별 best 병원을 추구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병원의 모든 진료관련 프로세스를 질병의 치료와 환자 편의가 우선되는 환자 중심병원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과거의 진료부서 위주, 의료진 위주의 병원에서 벗어나 환자위주, 질병 위주의 병원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진정한 환자중심의 병원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최고의 대학부속병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인 중증 질환 진료를 지향하고, 특화된 센터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우선 암전문병원과 뇌심장 전문병원을 내세워, 암환자와 뇌심장환자 진료를 특화 및 섹터화하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환자의 편의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다른 대학병원과 차별화된 진료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2013년 올해가 우리의 숙원사업인 첨단의학센터 건립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첨단의학센터 건립의 첫 번째 단계인 중앙진료부 기초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반드시 착공할 계획입니다.

새로 추진 중인 중앙진료부에는 진료의 핵심인 수술실과 질병중심의 특성화센터 그리고 진료지원부서를 배치함으로써 공간 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병원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첨단의학센터 건립의 시작점인 중앙진료부 건축으로부터, 향후 단계별 발전계획인

첨단의학센터와 의료특화센터, 메디컬 콤플렉스 및 클러스터 구축의 거시적인 발전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진일보한 면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병원은 지난해 연구관련 직제 개편과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부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올해 역시 진료와 더불어 연구 역량도 강화하여 의료의 산업화와 연구중심병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 교육기관으로서 최고의 의료인 양성에도 힘쓰겠으며, 의료를 통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습니다. 해외환자 진료 확대와 국제 의료 교류를 통한 국제화에도 앞장설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2013년, 고려대학교병원은 더욱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 고대병원에 찾아오는 환자 모두가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대병원 교직원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의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은 의료기관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으며 병원에 불리한 의료정책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부단히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온 교직원의 화합과 협력으로 새로운 기회와 강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향후 국제 수준의 진료, 연구,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메디컬 콤플렉스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 실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냉정한 평가와 거침없는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한해도 희망찬 고대병원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 힘을 합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첨단 연구와 최상의 진료를 실현하는 글로벌 리더병원, 환자로부터 신뢰받는 환자 중심의 참된 고려대학교병원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병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고려대학교병원장 박 승 하



## 몽골인 간졸리그 씨, 고대병원서 선천성 심장병 쾌유

[ 경향신문 게재 ]

###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팀 수술로 새 생명 얻어



아리온나 몽골 주치의, 임도선 교수, 간졸리그, 정재승 교수.

순환기내과 임도선 교수(52)는 2011년 몽골에서 온 e메일을 받았다. 발신인은 몽골 제3국립병원 심장내과 의사인 아리온나(35·여). 아리온나는 “몽골인 간졸리그(40)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숨조차 쉬기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몽골의 한 외곽지역에 사는 간졸리그는 5살 때부터 조금만 움직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는 증상에 시달렸다. 그는 몽골에서 수학교사로 일했지만 3년 전 증상이 악화돼 일을 그만둬야 했다. 그는 6살과 3살짜리 자녀들을 보며 ‘그래도 죽을 수는 없다’고 마음먹고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있는 제3국립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몽골의 의료 기술로는 그를 치료할 수 없었다. 담당의사인 아리온나가 임 교수에게 e메일을 보낸 이유다. 임 교수는 같은 병원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40)와 치료 방법을 놓고 머리를 싸맨 끝에 수술로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간졸리그에게 치료의 길은 험난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로 남을 수 있다”며 그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몽골 담당의사가 동행한다는 조건으로 그는 지난달 고려대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진단한 간졸리그의 병명은 ‘우심실 기시증’.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어릴 때 수술을 받지 못하면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다.

수술을 집도한 정 교수는 “환자가 어릴 때부터 이따금씩 약을 먹는 것 외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수술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며 “다행히 상황이 매우 나쁘지는 않아서 수술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술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준 임 교수는 “치료받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몽골의 병원으로 돌아가 회복 중인 간졸리그는 아리온나를 통해 보낸 e메일에서 “곧 죽을 것만 같아 겁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게 새 생명을 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글 | 경향신문 박희양 기자

## “원인모를 통증의 고통·섬유근육통”

[ KBS 생로병사의 비밀 출연 ]



온몸을 누르는 통증, 그러나 검사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난다. 통증보다 원인을 알기가 어려워 더욱 무서운 질병이다. 통증은 있지만 어떤 병원을 가야될지 모를 때, 류마티스내과에 가면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근막동통 증후

군, 만성피로 증후군을 검사할 수 있는데 섬유근육통은 어떤 원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살갓만 스쳐도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환자가 많다.

우리 몸에 통증이 발생하면 신경의 말단세포에서 통증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섬유근육통은 이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된다. 반면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은 분비량이 감소한다. 결국 통증을 과하게 느끼는 증상이 나타난다.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우리 몸의 대표적인 18개의 압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일정한 압력 이상을 가했을 때 11곳 이상에서 통증을 느낀다면 섬유근육통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섬유근육통에 동반되는 전신증상들에는 긴장성 두통/편두통, 턱관절 증후군, 피로 및 만성피로 증후군, 수면장애, 특발성 요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기억 및 인지 장애, 이비인후과적 호소, 식도 운동이상, 비심장성 흉통, 호흡근 운동이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여성 요도 증후군 등이 있다.

섬유근육통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도 매우 중요하다. 주 당 4번 이상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섬유근육통 발병 위험이 29% 가량 낮았다.

운동 중 요가는 섬유근육통 환자의 통증, 무력감 그리고 최악의 통증을 견뎌내는 정도나 대응 방안에 큰 개선을 보였다. 또한 늘어난 수면시간은 통증 민감도의 감소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2년 미국대학 스포츠 협회에서 발간한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운동요법 책에는 섬유근육통환자들을 위한 운동요법도 소개되어 있다. 첫 번째로는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50-60%의 저중강도로 일주일에 3번 정도 걷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 움직일 수 있는 관절 각도를 늘려주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주고 부상위험을 줄여준다.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근육 강화 운동. 역시 견딜 수 있는 강도와 시간으로 하고 심장에서 멀어지는 운동은 피한다. 통증과 피로를 일으키기 때문에 처음엔 저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류마티스내과 이영호 교수는 섬유근육통 진단이 늦어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지목하며 “첫 번째는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다, 혈액검사나 고가의 MRI를 찍어도 섬유근육통은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진단이 어려운편이다. 두 번째는 인식 부족이 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한테도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이 인식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진단하기 어려워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하며 “섬유근육통의 치료는 약물치료가 중요하다. 통증에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인데 단순진통제가 아니라 섬유근육통에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치료약들을 사용하게 된다”고 약물치료의 중요성을 말했다.

도움말 | 류마티스내과 이영호 교수

## 당뇨병, 겨울철에 추울수록 움직여라!

[ 건강정보 ]

### 운동은 당을 소모시키고, 인슐린 감수성 높여 혈당체크 등 주의사항 꼭 지켜야



혈당수치별 운동 권고사항	
dL당 혈당(mg)	유의 사항
300	운동은 하지 말고 일단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다.
250~299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한다. 운동 시작 10분 뒤 혈당을 다시 측정해보고 혈당이 증가했다면 운동을 멈춘다.
150~249	운동하기에 가장 안전한 혈당 수준이다.
100~149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한다. 저혈당 증상이 있는지 관찰한다.
100 미만	운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자료: 고려대 안암병원 스포츠의학센터

2010년 연령대별 당뇨병 환자 비율(단위: %)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남	3.3	8.4	17.7	16.0	24.5
여	2.3	4.8	8.6	19.1	22.7

서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운동부족,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은 평생 잘 관리해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다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운동이다. 특히 올 겨울은 어느 때보다 강한 한파 때문에 야외활동을 비롯해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당뇨병 환자에게 겨울철 운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운동들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본다.

#### 운동, 당 소모시키고 인슐린 감수성 높여

당뇨병 환자는 당을 소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은 당을 소모함으로써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혈당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식사 후에는 산책 등으로 몸을 어느 정도 움직여 음식을 소화시킨 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에 전달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뇨병이 발생한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 효율성을 높이고,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많은 양의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혈당조절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비만을 줄인다. 지방세포는 인슐린저항성을 높여 혈당 관리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 지방세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유산소운동과 근력강화운동 병행하면 효과 Up!

겨울철에는 외부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전신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걷기, 속보, 수영,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을 높여 칼로리를 더 소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력강화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좋다.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60~80%가 효과적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강도는 높게 유지하고, 연령이 높으면 강도를 이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은 적어도 20~30분 이상에서 1시간 미만으로 하고, 근력강화운동은 15분 정도면 충분하다. 운동빈도는 주당 3~5일이 적당하다. 실내에서 가벼운 아령 들기,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해 스트레칭 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도 겨울철에 하기 좋은 운동이다.

#### 운동 전 혈당체크 필수, 300 mg/dl 이상이면 운동 금해야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시작할 때는 꼭 혈당체크를 해야 한다. 운동을 시작하는 처음 일주

일은 특히 혈당체크가 중요하다. 공복 혈당이 300 mg/dl 이상인 경우에는 운동을 해도 제대로 포도당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않고,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면 몸에서 케톤이 발생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한다. 케톤이 몸 안에 심하게 쌓이면 혼수상태까지 올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소변에 케톤이 양성으로 나타날 때도 운동은 금물이다.


또한, 공복 시나 식전에는 저혈당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운동을 피하고,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2시간 이상 장시간 운동을 한다거나, 땀뻘기와 같은 충격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하고, 만약을 대비해 파트너와 함께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운동 중 저혈당이나 탈수 현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상황을 담당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 당뇨병 합병증 환자는 운동 시 특히 주의

당뇨병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발의 경우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당뇨발 전용 신발을 착용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고정식 실내 자전거의 경우 발에 큰 압박이 가해지지 않으면서 날씨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하고 넘어질 위험도 없기 때문에 당뇨발 환자에게 적합하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환자는 눈에 압력이 가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무거운 걸 들거나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은 피하고, 가볍게 걷기 정도가 추천된다.

#### 당뇨병 환자, 겨울철 추천 운동

고려대학교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서 추천하는 '겨울철 집에서 하면 좋은 운동' 을 소개한다. 겨울철에는 낙상과 미끄럼의 위험이 높으므로 가벼운 실내 운동이 추천된다.

- 책상을 약 15~20cm 정도 쌓아 놓고 위,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운동을 통한 계단을 걷는 것과 유사한 운동효과를 볼 수 있다.
- 실내 홀라후프운동을 권장한다. 무거운 홀라후프를 이용해 10분간 강도 높은 홀라후프 운동을 하면 달리기 8분을 한 것과 비슷한 소비효과를 낸다.
- 고정식 실내자전거 또한 유산소운동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 또한 내 목표심박수에 맞추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목표심박수 = (최대심박수 - 안정시심박수) \* 60~80% + 안정시 심박수

최대심박수 = 220 - 나이

도움말 | 당뇨센터 최동섭 교수 / 스포츠의학센터



## 한국인의 암 치료, 세계적 역량으로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 클리닉저널 특집기사 ]

### ‘암 환자 서포트팀’ 과 ‘다학제적 시스템’ 프로젝트로 환자 삶의 질 높여 복강경과 로봇수술, 그리고 방사선 최신암 치료기기로 ‘도탈’ 암 정복



항암치료센터



2013년 리모델링된 암센터 로비

국가암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암으로 진단받은 암 발생자는 17만 8816명. 1999년 이후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법의 발전으로 암 진단 뒤 건강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확률 역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병원 암센터는 규모의 확장과 첨단장비 도

#### ■ 세계적인 의료진이 암 전문 치료시스템 가동해 치료 성공률 높여

○ 2003년 7월에 개소한 고려대학교병원 암센터는 세계적인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One-stop 진료와 함께 암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암센터의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개선을 실천하여 환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신경 쓰고 있다. 1992년 개설된 중앙혈액내과와 각 분야별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은 다학제 치료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신의료 장비 및 최첨단 진료 시스템을 중심으로, 부위별 암 수술을 담당하는 각 외과 파트와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방사선 종양학과의 의료진이 긴밀한 협진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한, 최고 사양의 토모테라피와 국내 최초로 도입된 트릴로지 등 각종 첨단 방사선 암치료시스템 구축과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복강경과 로봇수술 등 최소 침습 수술로 환자만족도와 치료효과를 높이고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일일항암치료실을 확장해 입원이 필요 없이 당일 진료에서 치료까지 단 하루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암 환자 헛타인은 암 환자의 지속적이고 전인적인 치료를 위해 암 환자 코디네이터가 전담하고 있다.

입에 앞장서고,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통합진료팀이 환자에 대한 분야별 의견을 제시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결정하고, 맞춤 치료 실시와 전문 코디네이터제도를 병행함으로써 환자중심의 진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고려대학교병원 암센터는 암 환자의 모든 진료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다양한 질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인의 암 치료를 선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병원 암센터는 세계적 역량으로 가장 전문적이고 특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열홍 암센터장은 “위암과 갑상선암, 대장암과 유방암 등은 우리나라 남녀 대표 암으로 한국인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질병이다. 암은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건강검진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열홍 센터장은 “설사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암은 치료 잘 받고 잘 관리하면 살 수 있는 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완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살은 개인 문제가 아니다

[ 조선일보 게재 ]

요즘 자살이 너무 흔하다. 특하면 터져 나오는 게 누군가의 자살 소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매일 44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현대인은 하루 중 신문을 읽는 데 약 39분을 보낸다고 하니, 이 신문 지면을 살펴보는 중에도 어디선가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셈이다. 자살이 너무 익숙해진 세상이 됐다.

자살을 시도한 우울증 환자는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편해질 것 같다'는 말을 하곤 한다. 과연 그럴까. 죽은 뒤에는 편안함·후련함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오히려 남은 사람들은 '대체 왜?' 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되풀이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때론 자살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많은 이가 자살을 고통 해소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는 듯하여 안타깝다.

자살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 부류가 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소속감을 잃어버리면서 시도하는 자살은 이기적인 자살이다. 학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이혼·독거자 등의 자살이 여기에 속한다. 이타적 자살은 사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때 발생한다. 민주나 정의, 종교적 신념을 외치며 분신·투신하는 경우가 이 범주에 속한다. 가치관의 붕괴와 혼돈에서 오는 아노미적 자살도 있는데, 이는 대개 파산이나 실직을 경험하고 나서 하게 된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 통합 기능의 부실에서 온다는 것이다. 자살의 원인을 경제적 어려움, 학업·직업·결혼생활의 실패, 대인 관계의 갈등, 신체 질병 등에서 찾지만 과거에도 그런 어려움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럼 왜 예전보다 자살이 증가하는가. 결국 사회가 다원화하고 복잡해졌지만 사회가 개인을 적절하게 아우르고 자살하지 못하게 하는 제어 장치를 제대로 두지 않은 탓이다.

따라서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사람, 실제로 자살한 사람을 낙담하고 의지가 부족하다며 몰아붙이고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하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자살 책임을 그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분위기 역시 변해야 한다. 이제 자살을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합과 안전망 문제로 봐야 한다.



정신 건강 의학계에서는 자살 가능성이 큰 환자를 선별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 데 힘써 왔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사회단체·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시스템과 실업 대책이 자살 예방과 연계되어야 한다. 학교의 정신 보건 교육, 알코올과 약물 관련 법안 개선, 정신 상담 제도 활성화, 건물·교각의 자살 예방 기준 강화, 자살에 쓰일 위험성이 높은 도구의 접근 제한 등 세세한 것을 모두 논의해야 한다. 언론도 유명인의 자살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자살 예방 활동이나 자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자주 소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어느덧 예전보다 크게 나아진 경제적·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물질적·외형적 가치만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이제 생명의 소중함과 내적 가치의 귀중함을 돌아봐야 한다. 삶이 언제나 살 만한 것이 아니라라는 점은 모두 알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나 우울함과 고통만 있지 않다는 것도 느끼며 산다. 하지만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위의 누군가에게 "나 지금 많이 힘들다. 괴롭다"고 하면서 손을 내밀 수 있고,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그 손은 당신이어야 하고, 사회이어야 하고, 국가이어야 한다.

글 | 정신건강의학과 이민수 교수



### VIP 위한 휴식·교류의 공간, 노블레스 라운지 오픈



고려대학교병원이 지난 11월 VIP병동 개소에 이어, 최근 노블레스 라운지를 오픈하며, 병원 기부자, 공헌자, 협력병·의원장 등 VIP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노블레스 라운지는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VIP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휴식뿐 아니라 업무, 문화교류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및 노트북과 몸이 불편한 환자가 누워서 쉴 수 있는 소파 겸 침대도 마련되어 있다. 고려대학교병원은 VIP 병동에 이어 이번 노블레스 라운지 개소로 VIP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확충시킬 예정이다. 특히, 단순히 병원 내 편의제공을 넘어, VIP 예우를 강화함과 동시에, 문화 행사 등을 통해 병원안팎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오송첨복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12월 28일 오후 3시 본부회의실에서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신약 후보물질 공동개발과 보건의료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는 내용을 골자로 MOU를 체결했다.

고려대병원 박승하 원장과 윤여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식에서 △신약 후보물질의 공동개발 △임상시험을 포함한 신약·의료기기 개발 △개발기술·제품 사업화 △보건의료관련 R&D분야 공동연구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박승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복분자 혈중지질 개선 기능성 검증 심포지움 성료



임상시험센터(센터장 최재걸)와 고창복분자연구소(이사장 이강수)가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대강당에서 ‘로하스 시대를 선도하는 복분자의 건강 기능성 효과’를 주제로 ‘복분자 혈중지질 개선 기능성 검증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각 분야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복분자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고대병원, 복분자연구소 관계자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홍순준 교수를 포함한 총 6명의 교수는 복분자의 혈중지질개선 기능에 관련하여 연구내용을 발표하였다.

한편, 고려대학교병원은 지난 2011년 고창군 MOU체결하며 복분자의 기능성 검증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 코코아 콘서트와 유쾌한 행사를 통해 즐거운 시간 나눠요



고려대학교병원이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환자, 환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이 주최하고, 친절리더가 지원해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병원 로비에서 진행됐다.

저녁 7시에 진행된 ‘코코아콘서트’는 교육수련팀 박성훈 사원의 사회로 시작됐

으며 준비한 의자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모였다. ▲아카펠라(고대 로고스 동아리) ▲마술(미스디렉션) ▲강남스타일 댄스(심혈관센터 채정훈, 이혜심) ▲KUDT 댄스 동아리 및 고대사회봉사단 전체 플래시 몹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플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해 주는 시간도 가졌다. 아카펠라 동아리 로고스의 한 여학생은 공연에 앞서 “올해 여름에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쓰러져 입원했었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회복중입니다”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모두 건강 되찾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고 말해 행사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하는 치유의 음악회

[ 원내특집 ]

### 고대병원, 'With you' 이루마 연주회 개최



고려대학교병원에 아름답고 감성적인 피아노의 선율이 울려 퍼졌다.

지난 12월 20일(목) 저녁 8시 의과대학 유광사홀에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연주회 'With You'가 개최됐다. 고대병원의 기부자, 협력병원 관계자, 심혈관센터 환자 등을 초청해 이루어진 이번 이루마 콘서트에는 300여석

의 객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관객들이 참석해 이루마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심혈관센터 임도선 교수의 사회로 문을 연 이번 공연은 바리톤 정효식과 테너 이대형의 성악으로 시작됐다. 먼저 ‘신고산타령’, ‘박연폭포’, ‘나는 최고의 이발사’, ‘남몰래 흘리는 눈물’ 등의 시원시원한 솔로가 노래된 후 두 성악가의 중창곡 ‘향수’가 이어졌다. 중저음의 바리톤과 테너의 맑은 소리가 어우러진 ‘향수’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이어서 이루마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루마는 ‘한번씩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법한 곡’

이라고 소개하며 ‘Kiss the rain’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곡에 대한 설명과 함께 ‘Maybe’, ‘기억에 머무르다’ 등을 연주했다. 또한 ‘프로그래밍에는 없지만 오늘 이 곡을 연주해 드리고 싶다’며 ‘When the Love falls’를 관객에게 선사했다.

특히, 즉석에서 관객 중 한명의 자원을 받아 함께 즉흥 협주를 펼치기도 했다. 지인의 소개로 콘서트에 참석했다는 김계리(女, 유치원 교수) 씨는 ‘어떤 연주를 들려주고 싶냐’는 이루마의 질문에 ‘관객에게 행복을 주고싶다’고 했고, 김계리 씨의 간단한 연주에 맞춰 이루마의 행복을 주제로 한 즉흥 협주가 환상적인 선율로 연주됐다.

이루마는 이후에도 몇 곡을 더 연주한 후, 관객과 함께 부르는 ‘let it snow’ 연주를 마지막으로 콘서트를 마쳤다.

이루마는 인사말을 통해 “고대병원에서는 해군홍보단 시절에도 공연한 적이 있을 만큼 인연이 있다”며 “오늘 연주를 통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병원 연주회에 기꺼이 응해준 이루마 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음악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2012년의 수고를 위로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2013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경과 박건우 교수, 방송통신위원장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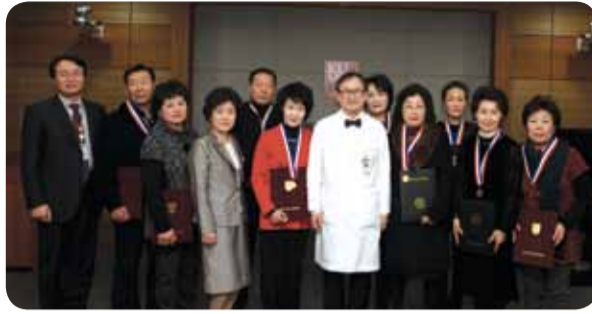
신경과 박건우 교수가 3D TV 상용기반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박건우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안과 김승현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고영훈 교수와 '3D TV의 안전성 연구와 안과, 신경계 및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의 시청 불편감 및 대처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매년 가이드라인(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에 발표하고,

국내 및 세계 표준에 등재했다.

박 교수 팀은 3D TV는 향후 국내 가전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매스미디어의 소외층이 될 수 있는 안과, 신경계 및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계층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및 그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 정년퇴임식 실시



고려대학교병원은 12월 28일 본부회의실에서 '2012 정년퇴임식'을 갖고, 9명의 정년퇴직자에게 표창장과 메달을 전달했다. 이번에 정년퇴직하는 9명의 직원들은 짧게는 8년, 길게는 21년 동안 고려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해왔으며, 2012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정년을 맞이하게 됐다.

박승하 원장은 퇴임식에서 "그 동안 병원을 위해 힘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삶이 현재보다 더 즐겁고 멋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자원봉사자들과 뜻깊은 시간 함께 나뉘



고려대학교병원이 '자원봉사자 시상식'을 갖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 작년 고려대학교병원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는 이미 222명을 넘었으며, 이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병원 곳곳에 뻗친 봉사시

간만 무려 21,266시간이었다.

특히, 외래지원파트, 문화봉사, 병동지원파트, 행정지원파트 등 일선에서 환자의 불편한 점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날 행사에서는 우수 자원봉사자를 포상했다. 최우수봉사자에 이옥순(치방진), 우수봉사자에 김용수(수술실), 대학생 봉사자에게 수상하는 영파워상에 임영재 (소아청소년과) 봉사자가 수상의 영예를 얻었으며, 이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전달했다.

박승하 원장은 "타인을 위해 봉사를 하면 상상치 못한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실제로 대가없이 누군가를 위해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 간호부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합니다”



간호부(부장 이은숙) 외래 친절 향상 위원회에서는 2013년 1월 9일 불우 이웃 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사랑의 돼지저금통 동전 모으기를 통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올해로 3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는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외래 전 직종에서 개인별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모금하여 진행하였고, 총 모금액 2,000,000원을 병동에 입원중인 환우 1인과 지역사회 새터민 청소년 그룹홈에 각 1,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새터민 청소년 그룹홈은 탈북한 남학생 10명과 교사 한 분이 같이 생활하는 곳으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으며 밝은 성격과 함께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은숙 간호부장은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모여 외롭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한 가족에게는 많은 고마움과 희망으로 느껴지는 시간이었기에 나누면 행복하다는 평범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 “의지만 있다면 당뇨, 극복할 수 있어요”

[ 포토뉴스 ]



고려대의료원은 지난 1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우리는 건강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2012 소아청소년 참살이 건강캠프' (위원장 이기형)를 주최했다.

경기도 김포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된 이번 당뇨캠프에는 안암, 구로, 안산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간호부, 영양팀, 의료사회사업팀 등 각 분야의 전문 스태프와 당뇨환아, 자원봉사자 등 총 80여명이 참여했다.

신한카드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이기형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 겨울나기 건강운동 (간호분과) ▲ 우리모두 함께 하는 건강식사 (영양분과) ▲ 건강 부루마블 (의료분과) 등 각종 레크레이션의 항목으로 진행이 되었다. 특히 ▲ 내 꿈에 한 발자국 더.. (사회사업분과)란 주제로 진행된 진로 탐색 및 미래희망에 대한 준비 활동 시간은 아이들의 적절한 질병관리가 장래희망을 이루는데 꼭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동기부여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 캠프 위원장인 소아청소년과 이기형 교수는 “당뇨는 관리만 잘하면 잘 지낼 수 있는 병”이라 강조하며, “이 시간을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충을 함께 나뉘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말했다.



# 고려대학교병원 진료시간표

\* 선택진료 의사 | 대표번호·전화예약 1577-0083 | 인터넷 예약 http://anam.kumc.or.kr | 응급의료센터 02)920-5373 | 2013년 1월 29일 현재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과 별(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화기센터 3층 ☎6551	류 호 상	화, 목	화, 목	간질환, 위장관질환	성형외과 3층 ☎5440	박 철	월, 금	월, 금	귀성형, 화학박피									
	김 창 덕	수, 금	월, 목	담석, 담도암, 췌장암, 췌장염		안 덕 선	수	수	손저림증, 화학박피									
	엄 순 호	월, 수, 금	수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박 승 하	금	금	소아기형, 안면마비, 레이저박피, 턱성형									
	전 훈 재	화, 목, 금	금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이 병 일	월, 수	월, 수	미용성형, 유방성형재건, 안면외상재건, 미세수술									
	이 흥 식	월, 화, 목	금	담석, 담도암, 췌장염, 위장관질환		윤 을 식	화, 목	화, 목	유방재건, 지방성형, 수부재건, 눈, 코, 주름성형, 레이저									
	진 윤 태	수, 금	화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장 서 윤	화, 목	화, 목	일반재건성형, 미세수술									
	서 영 석	월, 목	금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일 반 의	월, 수, 금	월-금	외상									
	김 보 라	월	수, 목	위장관양성질환, 식도암, 위암, 대장암		소아청소년과 3층 ☎5650	손 창 성	화, 수	수, 금	소아심장질환, 신생아								
	김 은 선	수	월, 금	위장관질환			이 광 철	월, 목, 금	목	소아혈액종양, 대사질환								
	정 진 용	화	화, 수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정 지 태	월, 금	월, 화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								
최 희 순	화	화	위장관질환	이 기 형	월		월, 수, 목	소아내분비질환(저신장, 성조숙증, 갑상선, 비만)(목오후:2,4주)										
이우진(토오전:1주), 김예지(토오전:2주), 임선영(토오전:3주), 김선영(토오전:4주)				유 이 은	월, 수		화, 금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										
내과 3층 ☎5410	김 형 규	월, 금	화	고혈압, 신장질환	남 우 어		수, 금, 토	화	소아내분비(토오전:3주)									
	조 원 용	수, 금	월, 수	고혈압, 신장질환	일 반 의		화, 목, 토	화	소아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환경성질환(토오전:1,2주)									
	조 상 경	목	수, 목	고혈압, 신장질환	소아클리닉		손 창 성 (월 오후):	소아심장초음파(심장초음파실)										
	김 영 규	월	화, 금	고혈압, 신장질환			이 기 형 (월 수 오후):	저신장, 성조숙증, 당뇨, 갑상선										
	이 재 원	화	금	고혈압, 신장질환			이 은 희 (목 오후):	미숙아, 신생아클리닉										
	조 은 정	월	목	고혈압, 신장질환		이 소 희 (목 오후):	소아신경생리											
	내분비센터 3층 ☎5421	김 민 자	수, 금	월		간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윤 형 은 (수 오후):	소아신장질환										
		손 장 옥	월, 목	화		간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유방, 내분비외과 (유방센터) 2층 ☎6670	배 정 원	월, 목	화	유방암 및 갑상선암/유방암클리닉(목:오전), 유방양성형클리닉(화:오후)							
		손 윤 영	수, 금	수, 금		간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김 훈 영	수	월, 목	갑상선암 및 부갑상선 질환, 부신종양/로봇갑상선수술클리닉(수:오전)							
		김 시 현	화	목		간염질환, 림프절클리닉, 열병클리닉		이 혜 윤	화, 금	화, 금	유방 및 갑상선 질환							
암센터 2층 ☎5506		박 용 속	금	금		빈혈, 자반증(망)클리닉		유 지 영	수, 금	수, 금	유방 및 갑상선 질환							
		지 중 대	목, 금	월, 수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안과 2층 ☎5520	조 윤 애	월, 목	월, 목	사시클리닉, 약시						
		이 영 호	월, 화, 수	화, 목	관절염, 류마티스, 루프스	김 효 명			화, 목	화, 목	백내장클리닉, 각막클리닉, 근시교정(라식)클리닉							
		외과 3층 ☎5401	최 동 섭	월, 화, 목, 금	목	내과질환			유 재 권	금	화, 수	망막 클리닉, 유리체(수:오후-레이저환자만)						
			김 희 영	화, 수, 금	월, 수	내분비			조 경 권	화, 수	화, 수	녹내장클리닉, 백내장(수:오전-초진환자만)						
			김 주 형	목	월, 화, 목	내분비			서 영 우	화, 수	목	사시, 약시, 안성형						
	김 윤 정		수	수, 금	내분비	강 수 연			목, 금	화	백내장, 각막, 안과일반							
	안 재 희		월	월, 수, 금	내분비	임 영 섭	수, 금		수, 금	백내장, 각막, 안과일반								
	김 남 훈		월	화	내분비	일 반 의	화, 수, 금		화, 수, 금	안과 일반화								
	심혈관센터 4층 ☎6700		김 열 흥	목, 금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가정의학과 2층 ☎5104		조 경 환	월, 수, 금	월, 수, 금	노인학, 골다공증, 만성질환, 호스피스						
신 상 원			목, 금	화	두경부암, 폐암, 호스피스	고 병 준			화, 수	수, 금	골다공증, 노인학, 건강증진, 금연							
김 병 수			화, 금	화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김 양 현		목	화, 목	비만, 건강증진, 해외진료, 건강상담								
박 경 화			월	수, 목	유방암, 부인과암, 비뇨기암	한 병 덕		월, 화, 금	월, 금	금연, 비만, 건강증진								
김 승 태		화	화, 금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일 반 의	월-금		월-금	신체검사, 건강상담, 성인예방접종									
김 이 석		목	화, 수	고혈압의 항암화학치료	정신건강 의학과 2층 ☎5505	이 민 수		월, 수, 금	수	우울증, 치매, 조현병								
김 혜 속		화, 수	화, 수	고혈압의 항암화학치료		김 리 언		[보직:휴진]	수면장애, 적응장애, 조현병									
정형외과 3층 ☎5430		김 철 용	월, 화, 목, 금	월, 목		폐암, 소화기암, 두경부암, 유방암		함 병 주	월, 목	월, 목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박 영 제	화, 수	월, 화, 수, 금		뇌종양, 부인과, 비뇨기암, 폐암, 림프종, 소아종양, 육종		이 현 정	화, 수, 목	화	조울증, 수면장애, 조현병							
		박 일 반	화, 금	화, 금		종양학		윤 호 경	금, 토	화, 목	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토오전:1주)							
	호흡기내과 ☎5111	이 광 철	화	화		소아혈액종양	최 인 광	화, 토	화, 토	일반정신의학(토오전:2,4주)								
		박 종 훈	수	수		종양	일 반 의	월-토	월, 수, 금	일반정신의학(토오전:매주)								
		윤 호 경	수	수		우울, 불안, 수면장애(매주 수 오후)	신경과 2층 ☎5510	박 건 우	화, 목	화, 목	파킨슨병, 운동장애, 치매, 기억장애(수오후:초진만)							
		흉부외과 ☎5436	심 완 주	월, 목		화, 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수요일은 초진만)	김 병 조	월, 수	화, 수	다발성경화증, 말초신경질환, 척추, 근육질환(화오후:초진진료)						
			김 영 훈	화, 금		화, 금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정 기 영	수, 목	월, 목	간질(뇌진동), 수면장애, 두통, (목오후:수면장애)						
			임 도 선	월, 화, 목, 금	월	심혈관중재시술(화, 금요일은 초진만)		유 성 옥	월, 화, 금	화	뇌졸중, 뇌혈관질환(금:오전 2,4주)							
			박 상 진	수, 목	월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수요일은 초진만)		조 경 희	화, 금, 토	수, 금	뇌졸중, 어지럼증, 두통(금:오전:1,3주)(토오전:2주)							
홍 순 준			수, 금	화, 금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중재시술(금요일 오후는 초진만)	이 찬 념		수, 금, 토	화, 목	파킨슨병, 운동장애, 치매, 기억장애(토오전:3주)								
박 성 미			화, 금, 토	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토요일 초진만-격주)	장 재 흥		월, 수, 금	월, 수, 금	신경과질환, 말초신경질환, 근육질환								
최 중 일			월, 화, 목	목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심장성상사, 실신	산부인과 2층 ☎5450		김 선 태	목	수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여성내분비							
최 철 민	월, 목, 토		목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심장성상사, 실신	김 선 태			월, 화	월, 화	불임(체외수정), 폐경기관리, 골반경수술, 자궁근종, 난소혹								
박 재 형	수		월, 수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홍 순 철			월, 목	화	산과, 임신중약물상담, 고위험임신클리닉								
박 예 민	금		화	소아부정맥	송 재 윤		수, 금	월	부인암(자궁경부암, 난소암, 내막암)Colpo시술, 로봇수술									
소아외과 ☎5436	김 열 흥	목, 금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박 현 태		수	월, 목	불임(체외수정), 폐경기질환, 부인과내시경 수술									
	신 상 원	목, 금	화	두경부암, 폐암, 호스피스	이 상 속		화, 금	수, 목	부인암, 종양생식보존(임환자수정란, 난자, 난소동결&이식)									
	김 병 수	화, 금	화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배 오 속		화, 금	금	일반산부인과, 산과(토오전:매주)									
	박 경 화	월	수, 목	유방암, 부인과암, 비뇨기암	정 예 원		토	금	일반산부인과, 산과(토오전:매주)									
	김 승 태	화	화, 금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산부인과클리닉		김 선 태	월, 수, 목	월~목	일반산부인과								
	김 이 석	목	화, 수	고혈압의 항암화학치료			김선영(월-금 오전, 수 오후, 목 오전), 김택(월 오전, 화 오후), 홍순철(월 오전), 송재윤(수 오전, 금 오전), 박현태(월 오후, 수, 목 오후), 이상훈(화 오전, 수, 목 오후)											
	김 혜 속	화, 수	화, 수	고혈압의 항암화학치료		피부과 2층 ☎5470	계 영 철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건선, 탈모, 아토피, 레이저								
	외과 3층 ☎5401	김 철 용	월, 화, 목, 금	월, 목			폐암, 소화기암, 두경부암, 유방암	안 효 현	수	수, 목, 금	아토피, 백반증, 레이저							
		박 영 제	화, 수	월, 화, 수, 금			뇌종양, 부인과, 비뇨기암, 폐암, 림프종, 소아종양, 육종	서 수 흥	금	월, 수	피부암, 백반증, 레이저(수요일오전만), 피부과레이저클리닉:수오전							
		박 일 반	화, 금	화, 금			종양학	최 재 은	월, 목	화	여드름, 아토피, 레이저(목요일오후만), 피부과레이저클리닉:목오후							
정형외과 3층 ☎5430		이 광 철	화	화			소아혈액종양	일 반 의	토	월, 금	일반피부과(토오전:1,3주)							
		박 종 훈	수	수			종양	비뇨기과 2층 ☎5530	김 제 중	수, 금	수	남성과학, 불임, 전립선비대증						
		윤 호 경	수	수			우울, 불안, 수면장애(매주 수 오후)		이 정 구	월	월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 레이저수술						
		신경외과 3층 ☎5550	심 완 주	월, 목			화, 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수요일은 초진만)	천 준	화, 목	화, 목	종양학, 전립선암(로봇-복강경수술)					
			김 영 훈	화, 금	화, 금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강 석 호	목	수	종양학(로봇-복강경수술)						
			임 도 선	월, 화, 목, 금	월		심혈관중재시술(화, 금요일은 초진만)		장 훈 아	금	금	일반비뇨기과학						
			박 상 진	수, 목	월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수요일은 초진만)	재활의학과 2층 ☎6470		권 희 규	월, 수, 금	월, 목	전기진단, 뇌성마비, 척추손상						
	홍 순 준		수, 금	화, 금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중재시술(금요일 오후는 초진만)	강 윤 규			화	월, 목	통증, 관절염							
	박 성 미		화, 금, 토	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토요일 초진만-격주)	이 상 현			목	화, 수	척추디스크, 관절염, 어깨통증							
	최 중 일		월, 화, 목	목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심장성상사, 실신	이 성 범			수, 목	화	뇌질환재활, 인지장애, 연하(삼킴)장애							
최 철 민	월, 목, 토		목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심장성상사, 실신	윤 형 석	월, 금			목	일반재활의학과과학								
박 재 형	수		월, 수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일 반 의	화, 목		월, 수, 금	견관절통증, 경부통증, 요통									
박 예 민	금		화	소아부정맥	치과 2층 ☎5423	권 중 진		월, 수	화	구강외과								
통합의학과 ☎6930	김 열 흥	목, 금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임 용 구		월, 수	월, 수, 목	교정과								
	신 상 원	목, 금	화	두경부암, 폐암, 호스피스		전 경 아		월, 화, 목	월, 목, 금	보존과								
	김 병 수	화, 금	화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최 연 조		화, 수, 목, 금	월, 수	보철과								
	박 경 화	월	수, 목	유방암, 부인과암, 비뇨기암		전 상 호	금	월, 화, 수, 금	구강외과									
	김 승 태	화	화, 금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김 예 진	수, 목	월, 수, 금	치주과									
	김 이 석	목	화, 수	고혈압의 항암화학치료		일 반 의	월-금	월-금	교정과(토오전:매주)									
	김 혜 속	화, 수	화, 수	고혈압의 항암화학치료		이비인후과 2층 ☎5485	이 상 학	월, 수, 토	월	알레르기, 후각, 코성형, 부비동염, 비부비동 증양(토오전:4주)								
	소아외과 ☎5436	김 철 용	월, 화, 목, 금	월, 목			폐암, 소화기암, 두경부암, 유방암	박 세 진	월, 목	화	비과, 일반이비인후과학							
		박 영 제	화, 수	월, 화, 수, 금			뇌종양, 부인과, 비뇨기암, 폐암, 림프종, 소아종양, 육종	전 영 준	화	화	비과, 일반이비인후과학							
		박 일 반	화, 금	화, 금	종양학		신경외과 3층 ☎5550	정 학 현	목	월, 목	만성중이염, 소아이비인후과, 어지럼증							
이 광 철		화	화	소아혈액종양	임 기 형			화, 금, 토	금	만성중이염, 어지럼증, 인공와우, 보청기(토오전:3주)								
박 종 훈		수	수	종양	장 지 원			월, 수	수	만성중이염, 어지럼증, 인공와우, 보청기, 일반이비인후과학(토오전:2주)								
윤 호 경		수	수	우울, 불안, 수면장애(매주 수 오후)	정 광 윤			화, 목, 토	화	두경부암, 갑상선암, 부갑상선암(내시경, 로봇수술)(토오전:2주)								
소아외과 ☎5436		심 완 주	월, 목	화, 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수요일은 초진만)			백 승 국	수, 금, 토	수	두경부암(후두암, 구강암, 편도암, 인두암, 경부종물)(토오전:1주)							
		김 영 훈	화, 금	화, 금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박 민 우	월, 토	수, 금	두경부, 일반이비인후과학							
		임 도 선	월, 화, 목, 금	월	심혈관중재시술(화, 금요일은 초진만)			일 반 의	금, 토	월	일반이비인후과학(토오전:매주)							
		박 상 진	수, 목	월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수요일은 초진만)	영상의학과 3층 ☎5571		김 열 흥	목, 금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홍 순 준	수, 금	화, 금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중재시술(금요일 오후는 초진만)	이 남 준			월, 수, 금	금	뇌혈관조영술 및 뇌두경부중재시술								
	박 성 미	화, 금, 토	수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심장판막질환(토요일 초진만-격주)	김 윤 환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간암 및 복부 인터벤션시술								
	최 중 일	월, 화, 목	목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심장성상사, 실신	조 성 범		월, 수, 금	월, 수, 금	간암 및 혈관 인터벤션시술									
	최 철 민	월, 목, 토	목	부정맥, 심박동기&제세동기, 심장성상사, 실신	마취통증의학과 ☎5529		장 성 호	월, 목	월, 목	통증관리								
	박 재 형	수	월, 수	협심증, 고혈압, 심혈관중재시술			박 지 용	화, 금	화, 수, 금	통증관리								
	박 예 민	금	화	소아부정맥			외국인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통합의학과 ☎6930	김 열 흥	목, 금	월, 목	위암, 소화기암, 항암치료				외국인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신 상 원	목, 금	화	두경부암, 폐암, 호스피스					외국인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김 병 수	화, 금	화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외국인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박 경 화	월	수, 목	유방암, 부인과암, 비뇨기암		외국인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김 승 태	화	화, 금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식, 혈액질환							외국인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김 이 석	목	화, 수	고혈압의 항암화학치료								외국인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김 혜 속	화, 수	화, 수	고혈압의 항암화학치료									외국인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소아외과 ☎5436	김 철 용	월, 화, 목, 금	월, 목	폐암, 소화기암, 두경부암, 유방암									외국인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월-금	일반적인 외국인 내과, 소아과 질환
		박 영 제	화, 수	월, 화, 수, 금	뇌종양, 부인과, 비뇨기암, 폐암, 림프종, 소아종양, 육종										외국인진료센터 ☎5677	이 희 순	월-금	